

코스모스 향연 '기대 만발'

10월 개최 '임실N치즈축제' 앞두고 치즈마을 일원에 경관조성

오는 10월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임실군이 천만송이 국화꽃과 더불어 코스모스 향연을 선사할 전망이다.

군은 올해 임실N치즈축제의 새로운 볼거리 확충을 위하여 축제 행사장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에 대표적인 가을꽃인 코스모스 경관을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임실N치즈축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은 축제로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올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제5회 임실N치즈축제' 기간 동안에 임실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천만송이 국화꽃과 함께 형형색색의 가을꽃 코스모스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에 지난 6월 하순 노란색, 주황색 등 신품종 코스모스 종자를 파종했다.

무더운 여름철 현장에서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세심한 작물 생육 관리에 노력하며, 코스모스 우량 모종 170여 만주를 직접 생산했다.

이렇게 생산된 모종은 임실N치즈축제가 개최될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



오는 10월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임실군이 천만송이 국화꽃과 더불어 코스모스 향연을 선사할 전망이다.

치즈마을 도로변 및 유흥지에 식재된다.

축제 기간인 10월 상순부터 노란색과 주황색 등 형형색색의 만개된 코스모스 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축제 기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전역을 수놓을 국화꽃과 함께 코스모스까지 피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국화 등 경관작물을 도입을 통해 임실N치즈축제 성장을 견인해 온 심민 군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선호하는 대표적인 가을꽃인 코스모스를 축제 행사장 및 관광지 주변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축제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만송이 국화와 올해 새롭게 조성된 구절초 꽃동산과 코스모스 꽃이 만발한 임실N치즈축제가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임실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8일 함파우소리체험관 세미나실에서 남원시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 지역 문화발전 한 뜻

자원봉사센터-문화도시사업추진위 업무협약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종철)는 8일 함파우소리체험관 세미나실에서 남원시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송문갑)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자생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적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시민 중심의 문화 자변 확대에 기여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20일 열리는 문화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남원 팟캐스트'를 시작으로 지역사

회 문화발전"에 대한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경남 센터장은 "의미 있는 일에 동참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증가 할수록 서비스 만족도 높이는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류흥성 남원시 총무과장은 "문화 공유가치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최선

일상생활관리·건강관리·가족상담 등 서비스 지원

임실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발굴과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독거치매, 부부치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우선순위로 발굴해 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가족상담, 민간 및 공공서비스 연계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대상자 각각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한 후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또한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집중력, 기억력, 문제해결력 등의 인지영역을 수준별, 맞춤형으로 훈련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치매 및 동반질환 정보제공, 치매환자 가족교육, 투약교육 등 프로그램과 가사주, 미끄럼방지 등의 조호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방모(89)씨는 "몸도 아프고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어 나날이 외로운데,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이렇게 찾아와 공부도 시켜주고 안부도 물어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임실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발맞춰 지난달 2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남원시, 폭염 피해예방 캠페인 활동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은 해마다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갈증해소 및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폭염기인 7월부터 8월까지 생수전달과 얼음 비치 등 폭염피해예방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재단의 폭염 캠페인은 갑작스런 기온 상승과 장기화되는 폭염 속에서 복합적인 피해가 없도록 방재활동에

획 중 2달여간의 긴 활동으로서, 남원 장날마다 상인과 시장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1,000병의 얼려진 생수와 함께 폭염 국민행동요령 리플릿, 부채, 미니 구급함 등 안전 홍보물품과 함께 전달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재단은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난 달 29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15개

소 시내버스 승강장과 심수정에 각 15kg의 얼음을 비치하고 있으며, 폭염취약지역 사전 예방활동과 무더위쉼터 점검을 통한 보호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장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지쳐있는 시민을 위한 선(善) 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캠페인을 시작, 시민들이 반갑게 기다리,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고 해주셔서 봉사하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전 순창지사, 지역아동센터 노후가전 교체 지원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 사회봉사단(순창지사장 김한복, 노조지회위원장 김한근)은 최근 순창읍, 풍산면, 구림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노후 된

가전제품을 파악하고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노후 된 가전제품 중 아이들이 교육 및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필

요한 제품을 중점에 두고 시행했다.

봉사에 참여한 김한복 지사장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 아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조성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